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4면)

이희승 송파구의원

잠신중·신천중 찾아 교육현장 목소리 청취

“학교 현장의 목소리 세심히 살피고 교육환경 개선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희승 송파구의회 의원(잠실본·잠실2·잠실7동)은 지난 9월 7일 지역구 내 잠신중학교와 신천중학교를 잇따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환경 및 학교 운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의원은 잠신중학교에서 교장·교감·행정실장과 만나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환경과 시설 여건,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학교 운영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신천중학교를 방문해 교장·행정실장과 면담하고 학교 시설과 교육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는 한편,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방문에서는 특정 사업이나 개별 민원에 국한하기보다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실제 여건을 직



접 확인하고,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의원은 “학교마다 여건과 필요한 부분이 다른 만큼 현장을 직접 찾아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제기된 사항 가운데 구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희승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내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